

리셋컴퍼니 정성대 대표

웃으면 복이 와요
직원들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망설임은 인생의 사치다” 정성대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원동력을 찾는다”며 리셋컴퍼니의 창업 스토리를 소개했다. 리셋컴퍼니는 업계 최초로 제설 기능을 탑재한 태양광패널 무인청소로봇을 선보인 스타트업 기업이다. 정성대 대표는 자신의 모토대로 창업 역시 망설이지 않았다. 완제품이 개발되기도 전에 자신의 제품 구상만을 가지고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관련 박람회에 뛰어든 것이다. 결과는

단연 성공적이었다. 약 200억 원가량의 구매 희망서가 그 아이디어의 실용성을 입증했던 것이다.

박람회에 따로 마련된 한국 기업 부스가 아닌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 제품을 선보이는 대단한 전략도 통했다. 이는 모두 그가 일본의 문화적, 지역적 특수성을 직접 경험하고 목도했기 때문에 이뤄낼 수 있었던 성과였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국토의 절반가량이 폭설 지역에 해당하는데, 특히 태양광 발전소가 밀집된 북해도 지역에서는 패널을 뒤덮는 눈으로 인해 겨우내 에너지 발전이 불가하다고 한다. 정 대표는 일본에 잠시 체류하던 중 이러한 실태를 직접 목격하며 관심을 두게 되었다.





이어서 그는 8년간 국내 태양광 벤처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의 지역적 한계점을 기발한 창업 아이템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렇게 탄생한 리셋컴퍼니의 태양광 청소로봇은 국내 판매 1위의 제품이자 업계 최초로 일본에 수출되고 있는 무역 효자 상품이기도 하다. 그뿐만 아니라 리셋컴퍼니는 창업 5년 만에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환경창업대전’ 대상 수상, ‘중기부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선정,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등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벅찬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도 정성대 대표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여전히 끊임없는 도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국에 해외지점을 설립해,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글로벌 사무실에서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꿈이에요. 도쿄와 오사카에는 이미 사무소가 마련되어 있고, 곧 미국과 유럽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그는 이렇듯 판교를 본거지로 하되,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에도 리셋컴퍼니의 뿌리를 내리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는 사업 확장과 더불어 직원들의 다양한 희망 사항을 포괄하는 원대한 계획이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사람,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만드는 게 저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죠. 저도 대표가 되기 이전, 직원으로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직원의 입장에서 정말 필

요한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었어요. 그중에는 해외에서의 삶을 한 번쯤 꿈꾸는 경우도 있잖아요? 단 몇 개월, 몇 년이라도 말이에요. 그런 꿈을 가진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더욱 해외에 글로벌 오피스를 설립하고 싶어요.”

‘저 판교에서 일해요.’

직원들의 자부심

정성대 대표는 최근 판교 글로벌융합센터로 사무실을 이전한 것도 직원들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전 사무실은 제조 공장 근처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직원들의 업무 환경을 더욱 개선하고자 이곳 판교로 사무실을 옮기게 되었죠. 아무래도 ‘판교에서 일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게다가 쾌적한 새 건물에서 근무할 수 있고, 각종 편의시설도 정말 깨끗하고 넓기 때문에 생활의 질도 향상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하면 리셋컴퍼니의 각종 수상 이력 중에서도 정 대표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기반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하는 우수기업에 속하게 된 점이 특히 뿌듯하다고 밝혔다.

“저희가 최근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의 에너지 분야에서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것도 무척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저는 임금, 업무와 여가 균형, 고용안정의 세 항목을 토대로 선정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이름을 올리

게 된 일이 특히 기쁘더라고요. 저의 창업 철학 중 하나가 바로 사람 위주의 경영에 집중하는 것인데, 그게 공식적으로 인정됐다고 볼 수 있겠죠?”

직원들 또한 정 대표의 자부심을 대변하듯 대부분이 장기간 근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인들까지 리셋컴퍼니에 취직하도록 소개하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한다. 그중에는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성이 채용된 사례도 있었다.

“여성 직원들을 위한 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과 육아 때문에 커리어가 중단되거나, 회사 눈치를 보는 모습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아이 돌봄 문제에 대한 방안도 생각해 양육자가 마음 편하게 근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중소기업 복지를 적극 활용해 근속 직원들에게 육아휴직을 장려하기도 하는 등, 정성대 대표는 자신의 창업 철학을 경영에 실제로 적용하고 있다. 직원들의 만족도 역시 높은 편이다.

“지금 육아휴직 중인 저희 직원이 있는데, 휴직 중이니 쉬라고 하는데도 자꾸만 업무를 해서 연락을 주곤해요. 저희는 직원들이 따로 업무 보고가 없고, SNS에 자유롭게 사진을 올리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말리는 입장인데, 그 직원은 일이 하고 싶다며 스스로 찾아서까지 해주더라고요. 저로서는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도 휴직 중엔 꼭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커요.”

누군가가 시키지 않아도, 게다가 휴직 중에도 일을 찾아서 할 정도로 열정을 가지게 될 기업이라면 많은 취업준비생의 꿈의 직장이라고 할 만하다. 그렇다면 리셋컴퍼니에서는 어떤 인재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에 정 대표는 의외의 답변을 주었다.

“우선 잘 웃는 분을 선호해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 인간관계 속에서 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분이라면 언제든 저희와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일은 와서 배울 수 있고, 와서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언어 능력을 비롯한 특별한 스펙이 아닌 ‘웃음’과 기본적인 소통 능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본다는 것이다. 조금 더 덧붙인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

“저희는 면접도 티타임을 가지면서 편안하게 일상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해요. 그리고 굳이 꼽자면 구체적으로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은 동기와 진정성을 보는 편이에요.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진심이 느껴진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사람이 중심이라는 정성대 대표의 철학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답변이었다. 리셋컴퍼니에서는 학력, 경력, 성별 상관없이 잘 웃는 사람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한편,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일단 당장 시작하라’는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시작해보면 어렵지 않은데, 고민만 하다가 시작도 못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가하면 최선을 다해 준비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

면,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 발맞출 수 없어 다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망설임은 인생의 사치다’라는 모토로,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망설임 없이 곧바로 사업에 뛰어난 정 대표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어린 조언이다. 꿈이 있다면 우선 실현에 옮기라는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꿈을 얼마나 이루었을까?

그는 먼저 아주 어린 시절에는 꿈이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식당 자영업자를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며 먹는 것도 맛있게 먹었고, 잠은 식당 방에서 잤기 때문에 불편함을 몰랐다고 한다. 그러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니 꿈이 생겼다고 한다.

“한 번은 대학교 영어 강의 시간에 ‘my dream is CEO’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같이 들던 동기들도 다들 웃으면서 CEO가 정확히 뭔지 아느냐고 질문했던 게 생각나네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대표가 되었고, 다른 사람의 눈치보지 않고 제가 하는 만큼 돌아오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생활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으니 꿈을 이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대학시절의 막연한 꿈이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룬 지금, 과거를 회상하니 감회가 더욱 남다른 듯했다.

“직원들에게 급여나 상여금을 줄 때가 정말 좋았어요. 주는 기쁨이 이렇게 크다는 것도 깨달았죠. 물론 힘들고 불안할 때도 많지만, 직원으로 근무했을 때보다 대표로서 느끼는 성취



감이 월등한 것 같아요. 이런 뿌듯함이 바로 저의 창업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코로나19로 해외 수출에 난항이 극심해 매출액이 급감했을 때도 그는 직원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는 물론 없었거니와 무리해서라도 전직원에 연말 상여금까지 지급했다. 직원들이 오히려 미안함을 표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렇듯 어려운 시기를 함께 거처온 직원들은 아직까지도 리셋컴퍼니를 든든히 지키고 있다.

리셋컴퍼니에는 2022년 현재 23인의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다. 회사가 판교에 위치한다는 점은 정 대표에게는 채용 인프라의 확장을, 직원들에게는 첨단 혁신 도시에서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선사한다고 한다. 거기에 공유자전거, 판교 셔틀버스 등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면서도 조용한 분위기의 첨단 도시에서 지내는 느낌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런 판교의 모습은 주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비교되곤 하는데, 정 대표의 생각은 어떨까?

“제가 다녀온 곳 중에 판교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곳은 영국의 옥스퍼드 거리가 될 것 같아요. 2층 트램이 다니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모여 공부하고 창업할 수 있는 분위기 말이에요. 판교가 그런 문화와 창업의 본고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그는 리셋컴퍼니가 위치한 제2테크노밸리의 경우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주차공간이 유동 인구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다음에 트램 운영 및 주차타워 건설이 추진될 예정이기에 이를 통해 지금의 단점이 보완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없지 않았다.

그런가하면 이러한 불편함 외에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더욱더 근본적이고 절실한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기도 했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자금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우리 직원들 급여를 어떻게 더 많이 줄 수 있을까 매 순간 고민하고 있어요. 이진 창업 6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끝나지 않는 숙제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서 잘 팔아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 직원이 스무 명을 넘어가면서 적은 급여를 주는 회사로 기억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이니, 제가 만든 회사인 리셋의 직원이라면, 어디서든 최고의 복지와 급여를 받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리셋컴퍼니의 직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그의 바람은 이미 한 차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을 통해 단순한 명목이 아님이 증명되기도 했다. 이렇듯 운영 자금의 문제 중에서도 직원들의 급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통해 정 대표의 일관된 ‘사람 중심’의 철학을 느낄 수 있었다.

끝으로 정성대 대표는 <손자병법>을 자신의

‘인생의 책’으로 소개해 주었다.

“창업도 전쟁이라 생각해, 전략 서적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중에서도 <손자병법>은 나폴레옹이 침대에 두고 항상 보던 책이라고 해요. 무엇보다도 좋은 전략과 빠른 실행력은 창업의 성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글 정민진 / 사진 이병삼

망설임은 인생의 사치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원동력을 찾는다.

